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YTN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2014 MAY vol110

새로운 LOGO의 의미

●●YTN

YTN의 브랜드 에센스는 정보의 신뢰성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정보의 홍수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REAL SMART YTN**이다. 이 브랜드 에센스는 NO.1 뉴스채널이라는 기존의 브랜드 자산 위에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직관적이며 소통을 중시하는 이미지 등을 통해 표현된다.

새로운 YTN 로고의 병렬로 이어진 두개의 **正圓**은 현장과 YTN의 만남, YTN과 사람들 간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 정보 전달을 넘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만들어가는 YTN을 상징하며, 정적인 디자인을 넘어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YTN의 모습을 나타낸다.

2014 | MAY | Vol. 110

C O N T E N T S

커버스토리	상암동 시대 개막 ...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축하 메세지 배석규 사장 기념사 기정훈 It's Your Turn Now 서정호 바르게 걷는 달팽이 최영주 상암동 시대, 첫 오픈을 열다 임성은 상암 시대 개막! '...3! 2! 1! Cue! 떨림 그 순간' 김정아 이번엔 쇼나기다 상암 DMC의 새 명소, YTN INSIDE	004 005 006 008 011 012 014 016
ZOOM IN 1	함께 만드는 내일 쿠보 유이치 상암에서 함께 뉴스를 허찬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몽골로 떠난 YTN 중계차 오광식 '몽골로 보낸 YTN 뉴스밴'	018 020 022
YTN 사이언스 1	상암동에 부는 새 바람 안성명 힘내라 YTN 사이언스	024
YTN 사이언스 2	사이언스 게시판 이유찬 희망의 4월	025
YTN 플러스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수상기 박인혜 이번 정류장은 YTN입니다	026
YTN DMB	다시 꿈틀대는 '꿈과 열정' 이희수 YTN DMB 상암에서 재도약!	027
YTN 월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캘리 킴 "한국을 세계로 알린다"	028
핫 이슈 1	세월호 침몰 특종기 김범환 세월호 "3년 같았던 3분"	030
핫 이슈 2	살얼음판 위의 생방송 뉴스 정찬배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라	032
공연 소식	상암 시대 개막 축하 공연 조수미 흥날리는 꽃처럼 풍성한 음표가 넘쳐나는 "Voice of Spring"	034
광고	스타들의 YTN 신사옥 이전 축하메세지 게시판	036 036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 • 시청자팀 |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
TEL 02.398.8000 | 팩스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축하 메시지

뉴스전문 채널 YTN의 상암시대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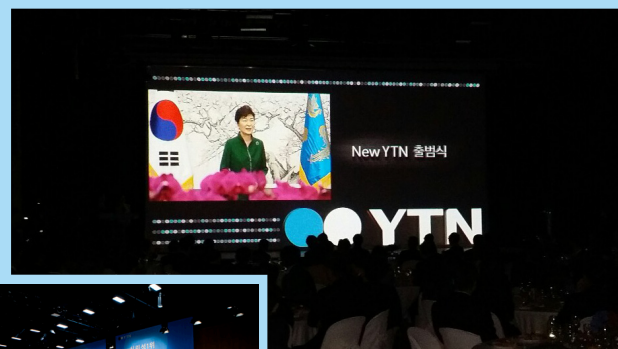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신 YTN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뉴스전문채널로 개국한 YTN은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왔고, 지구촌 어디에나 실시간으로 한국의 뉴스를 전달하는 글로벌 뉴스채널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YTN이 정확한 뉴스전달과 소통의 채널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시대 개막을 계기로 크게 도약하고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뉴미디어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념사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평소 저희 YTN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던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로운 YTN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YTN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채널로 태어난 저희 YTN은 그 동안 빠르고 정확한 뉴스, 공정한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YTN은 국내 언론학자들로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가장 공정한 미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신뢰성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미디어를 넘어서서 글로벌콘텐츠 리더로 도약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수송동시대와 남대문시대를 거쳐 오늘부터 상암동 시대를 연 저희 YTN은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더 나은 뉴스,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을 세계 속에 심고 또 다른 한류, 신 한류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YTN이 제시하는 미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TN이 앞으로 열어갈 익스클루시(Exclusive)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석규 사장

"It's Your Turn Now"

아주 특별한 내일을 위한 제언

기정훈 팀장 | 미래전략팀



I. 특별한 비전 / “뉴스 회사에 ‘뉴스’가 없다?”

미래전략팀의 고민은 팀 이름처럼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한다. 누구나 다 세우는 신년 계획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발전적이며 공감할 수 있는 변화,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필요로 했다. TFT가 구성됐고, 짧지만 매우 치열한 논의를 거쳐 YTN의 첫 ‘비전’을 선보이게 됐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

특이한 것은 한국의 뉴스채널 YTN의 비전에 ‘뉴스’란 단어가 빠졌다는 것이다. 치명적 실수가 아니라 치열한 고민이었다. YTN의 정체성, 뉴스는 다양한 콘텐츠 중의 하나일 뿐임에 주목했다. 보도국이 최고의 뉴스를 위해 노력했듯 제작국은 최고 의 다큐를, 사업국에서는 최고의 공연을 위해 노력했다. 최강 콘텐츠를 위한 노력, 과거에도 미래에도 YTN이 추구하는 가치였다. 미래와 통합도 놓칠 수 없었다. YTN은 현재의 사실 보도에 머물지 않고, 밝은 미래를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 했고, 또 사회 통합 기여를 넘어서서 YTN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자에게 구제의 손길까지 베푸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했다. ‘행복’, ‘미래’, ‘콘텐츠’로 엮인 우리의 비전은 그렇게 탄생했다.

여기에 더욱 특별한 슬로건으로 우리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Exclusive Tomorrow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누구도 쓰지 않을 단어, Exclusive, 오직 YTN만이 쓸 수 있는 슬로건이 만들어졌다. ‘내일의 특종’을 넘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YTN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일, 존귀한 당신께만 제공되는 천기누설. 그렇게 YTN은 더 나은 내일을 전할 것이다.

II. 특별한 집들이 / “오래 기억될 추억을 만들자”

올림픽을 떠올리면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는 성화 점화처럼, 집들이 행사 ‘New YTN 출범식’도 오래도록 회자될 멋진 장면으로 남기를 기대했다. 새 CI를 소개한 3D 매핑쇼나, 수송동부터 추억을 실어 나른 멀티콥터 이벤트는 그렇게 기획됐다. 3D CI 조형물

이 스크린을 대신하며 아직 낯선 새 로고 마크의 품격을 높여주려 했다. YTN의 첫 멀티콥터가 YTN의 20년 땀과 눈물을 모아오고, 그 추억의 파란 공은 다시 조형물과 어우러지며 비전과 새 CI를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여건 상 생각만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인상적’이었다는 인사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었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손님을 모신 최대 행사였다는 기록 또한 이제 뿌듯함으로 기억하려 한다.

III. 특별한 내일 /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찌 보면 부질없을 수도 있는, 비전 만들기와 집들이 행사가 모두 끝났다. 남은 것은 밝지 않은 전망과 치열한 경쟁뿐이다. 진도 세 월호 침몰 참사 보도에서 본 것처럼 시청률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한다. Exclusive Tomorrow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누구도 하지 않던 고민을 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회를 찾아야만 한다. 처칠이 말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어려워진 환경은 YTN에게 기회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 집, 새 얼굴, 새로운 환경, 딱 하나 남았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Now”



바르게 걷는 달팽이

서정호 아트디렉터 | 신사옥TF팀



“느려도 괜찮아. 산삼은 뿌리가 깊어 약이 되고,
낙타는 천천히 걸어서 사막을 건넌다.
달팽이처럼 느리더라도,
옳은 길을 찾아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렴.”

가족분만실에서 바라보는 출산의 과정은 힘들게만 보였습니다. 아이가 산도를 통하여 고개를 내밀 때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가위를 쥐어주며 탯줄을 자르라고 할 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일개 비루한 인간이 신의 신묘한 지점을 침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고결하게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신사옥동이를 만났습니다. 꼬물거리기만 하던 아이는, 어느새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다가 엄마를 마주할 때면 아이는 연신 미소를 지어 엄마를 기쁘게 합니다. 조그만 생명이 이 정도로 부쩍 자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과정은 설익은 엄마·아빠에게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행위는, 비유하자면 생명을 낳는 과정과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잡으며 나아가 연장을 들고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건물은 세워집니다. 집기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사용자들은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차가운 벽체에 온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은 하나의 건물이 거주지로 완성되는 정상적인 '길'이 되는 방향성입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손이 가는 길은 손길이라고 불립니다. 눈이 가는 길은 눈길이며 당연히 발이 가는 길은 발길로 불립니다. 빠른 차들이 달리는 길은 고속도로이지만 일반적인 속력으로 달리는 길은 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길은 식도이며, 아이가 출산되는 길은 산도라고 불립니다. 길은 이처럼 다양한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길이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양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은 진리의 길이자 옳은 길입니다. 반대로 죽음의 길은 잘못된 길이자 틀린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운동성이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방향입니다. 반면 죽음의 길은 멈춰진 것이며, 무채색으로 무기력하게 쇠퇴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길이 제시된다는 것은 올바른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아무리 발 빠른 계획을 세워 놓았어도, 또 아무리 뛰어난 사양들로 자재들을 준비해 놓았어도, 올바른 비전·방향 그리고 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아가지 않은 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대문 사옥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한 선배가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다면 속도는 아무 의미 없다.” 일전 사보에 언급했다시피, 상암동은 세랑게티 초원입니다. 미디어 업계 강자들이 사방에서 포호하는 장소입니다. 엄혹한 이곳을 발 빠르게 내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뛰어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방향입니다.

그런 것을 되뇌이며, 저는 이제 막 산고의 고통을 마친 뉴스퀘어에게, 아니 소중한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산삼은 뿌리가 깊어 약이 되고, 낙타는 천천히 걸어서 사막을 건넌다. 달팽이처럼 느리더라도, 옳은 길을 찾아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렴.” 하고 말합니다.

상암동 시대, 첫 오프닝을 열다

최영주 앵커 | 보도국 앵커팀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제 곧 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오프닝을 열어야 하는데 입이 바짝 말라온다. 방송을 앞두고 긴장이 되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날만큼은 두근두근 심장박동 소리가 내 귀에 울릴 정도로 많이 긴장됐다. 상암동 신사옥, 내게는 수송동과 남대문에 이어 세 번째 사옥인 YTN 뉴스케어 새 스튜디오에서 자정 뉴스의 첫 테이프를 끊는 순간, 멘트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고 행여 예기치 않은 방송 사고라는 아찔한 순간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

고난의 리허설

뉴스케어에서 첫 방송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은 편집부 각 팀별로 신사옥에서의 리허설과 구사옥에서의 방송을 병행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해야했던 한 주였다.

마침내 D-1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편집부 PD들과 앵커들이 총출동해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허나, 이날까지도 실수투성이다. 자꾸만 동선은 흐트러지고 헤드라인 사고가 나기 일쑤다.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이래서 제대로 방송하겠나', 그리고 또 생각했다. '뭐 어쨌게든 되겠지.' 신사옥에서의 첫 방송을 몇 시간 앞둔 휴일 오후는 그렇게 한숨 속에 흘러갔다. 어느덧 상암동 주변에 어둠이 깔리고 방송에 필요한 인력들이 속속 모여든다. PD, 앵커, 기술감독, 스튜디오 카메라맨, 프롭 파터, AD 등 방송을 위해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낮익은 YTN 식구들이다.

4월 7일 0시 10초 전

상암동 신사옥 시대를 여는 타이틀이 돌고 남대문 사옥에서 상암동 사옥으로 전파가 옮겨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날 첫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리허설을 하며 내가 미처 간과했던 것은 바로 우리 YTN 식구들의 '20년 내공'이었다. 그날 그 시각만큼은 모두가 뚝뚝 뭉쳐 단 한 순간 아찔한 사고 없이 신사옥 스튜디오에서의 첫 신고식을 무사히 치렀다. 방송 기술적인 부분도 성공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특집 방송을 알차게 채웠던 콘텐츠였다. 'YTN 창사에서 상암동 시대까지'를 담은 영상구성과 'YTN이 걸어온 격동의 20년',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YTN과 하루를 함께 합니다' 등 웰메이드한 콘텐츠들이 그날의 뉴스를 빛나게 했다.



상암동 신사옥에서 오프닝을 열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상암 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첫 자정뉴스입니다. 한국 No.1 뉴스채널 YTN은 방송 20년째를 맞아 새롭게 건축된 최첨단 디지털 방송기지에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YTN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올바른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 뉴스채널'로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이브닝뉴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영수 선배와 함께 한 이날의 오프닝 화면은 앞으로 YTN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앵커로서 영광이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웠다. 부디 시청자에게 약속한 오프닝 멘트대로 YTN이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올바른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으로서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상암 시대 개막! ‘...3! 2! 1! Cue! 떨림 그 순간’

임성은 기상캐스터 | 웨더본부

●● YTN
weather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3월. 차가웠던 공기도 조금씩 따스함을 더해가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 3월의 봄은 누구에게나 이유 없는 설렘을 안겨다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올해 3월은 유독 더 그렇다. YTN이 상암 신사옥 <YTN 뉴스퀘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추억을 고이 접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상암으로...

"Let's move on!!!"

신사옥 입주 첫 날. 입사 후 회사에 첫 걸음 했을 때가 생각날 정도로 괜스레 두근두근했다.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에, 손때가 묻지 않은 사무실 집기들, 웅장해진 스튜디오와 사옥..., 아직 제 모습을 제대로 갖추진 않았지만 현장을 둘러보면서 무엇인가의 처음,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신사옥에서의 첫 생방송.

“굿모닝 웨더 생방 10초 전입니다. All standby-!”

YTN weather 김보리PD의 아침을 깨우는 힘찬 목소리. 그녀는 항상 힘차다.

피곤하더라도 방송만 들어가면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는 그녀다.

3, 2, 1...카메라 텔리에 방송이 시작됐다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상암 신사옥에서 첫 생방송이 시작했다. 그 순간의 심정이란... ‘심장은 쫘깃쫘깃, 온몸은 오들오들, 달달달...’

‘안녕하세요, 굿모닝 웨더 임성은, 박은실입니다.’

첫 오프닝 멘트가 입에서 떨어지고, 웨더본부의 상암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불안과 걱정이 수없이 교차했던 것들과는 달리 순조롭게 첫 방송이 이어졌다. 첫 생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방송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과 스태프들의 모습이 눈에 자세히 들어왔다.

오밀조밀 맞춰지는 톱니바퀴처럼, 진행자와 스태프 사이의 손과 발도 척척 맞아야 하는 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한 순간에 모여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방송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일 한다는 것, 누구 하나 앞서 나가도 뒤처져도 안 되고 서로 호흡하며 맞춰가는 것이 바로 방송의 큰 매력인 것 같다.

때론 얼굴 붉히며 투덜투덜 의견이 어긋날 때도 있고, 때론 배꼽 빠질 듯 눈물까지 흘리며 웃기도 하는 YTN weather와 YTN 가족들...

새로운 보금자리 YTN 뉴스퀘어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어떤 역사가 그려질지 기대된다.

매일 쉽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힘들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도 있기 마련이다.

늘 지금까지처럼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얻는 그런 YT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YTN & YTN weather 아자!!!”



이번엔 소나기다!

김정아 CP | 편성제작국 제작팀



“불통 그리고 나눔이 부족한 이 시대, 소통과 나눔의 아이콘으로, 그 형식은 20년 YTN 역사상 최초의 공개방송으로 한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제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지어졌다. 뉴스 전문채널인 YTN의 정체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요즘을 대세인 공개방송과 대중이 바라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범위 안에서 걸러진 방향이다. 뉴스 전문채널로 굳어진 이미지에 조금 모험이지만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 결정에는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했다. 대한민국 뉴스채널의 대표 브랜드를 지향하는 YTN에서 강연, 그리고 방청객의 소소한 개인사를 통해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을까? 그리고 YTN의 고정 시청자들이 바라는 욕구에 부합하게 품격 있는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일단 파일럿 한 편을 만들어보라는 제작 결정이 내려졌다. 항상 시작은 어렵고 처음은 어색하다. 역시 시작하니 산 넘고 산이었다. 첫 공개방송 시도인 만큼 제작과 진행에 노하우 있는 사내 경험자가 있을 리 없었고 더욱이 공개방송에 마땅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신사옥으로 이사를 앞둔 때였지만, 신사옥 공간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다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1층 YTN홀이 떠올랐고, 방송용 공간이 아니었던 만큼 곳곳이 암초였다. 부조가 연결돼 있지 않아 녹화는 중계차를 활용했다. 형형색색의 무대 세트를 만들고 조명과 오디오 시스템을 정비하며 녹화장 모습을 갖춰갔다. 방청객 모집은 전문 사이트의 힘을 빌려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했고, 기존의 여타 강연 프로그램을 모조리

“‘소나기’는 불통 그리고 나눔이 부족한 이 시대,
소통과 나눔의 아이콘으로,
그 형식은 20년 YTN 역사상 최초의 공개방송으로 한다”

모니터해가며 소나기만의 자막 포맷과 편집 틀을 만들었다.

참으로 어렵게 시작된 첫 녹화. 다행히 김창옥 교수는 그 넓은 녹화장에서 자신만의 재치와 입담을 아낌없이 펼쳤다. 앞서 말했듯이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일명 <소나기>는 일반인 방청객을 프로그램 안으로 깊숙이 끌어 들여 제작되는 쌍방향 강연 토크쇼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김창옥 교수는 이미 강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파일럿 반응은 나쁘지 않았기에 10회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소통을 큰 주제로 잡은 만큼 ‘대국민 불통치유 프로젝트’라 이름 짓고 현재 녹화를 진행 중이다. 난 입사 이후 참으로 다양하게 경험했다. 앵커로, 뉴스 편집 PD로, 취재기자로..., 하지만 20년 가까운 방송에도 나는 아직 소심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모자라는 능력으로 높은 목표 앞에 가끔 좌절한다. 그 결과는 두 달 만에 부쩍 늘어난 흰머리로 나타났다. 첫 공개방송 제작에 많은 배움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한계를 절감하는 시간이 었다. 다만,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면 이는 모두 함께한 분들의 몫이다. 모든 난관을 추진력 하나로 돌파해오면서 숭선수범한 임수근 팀장, 월·화·수·목·금·금·금, 주 7일 근무를 마다치 않은 황수진·김경화 작가, 그리고 김미연 PD, 굶은일 도맡아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여주현 AD 그리고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제작기술부와 중계부의 모든 분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전한다. 여전히 시작이고 진행형이지만 ‘소나기’는 우리의 ‘소나기’이고, 아직 시청자들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소나기’이다.





상암 DMC의 새 명소, YTN INSIDE

YTN은 상암동 시대를 개막하면서 신사옥 '뉴스퀘어' 1층과 5층에 한국의 뉴스채널, YTN 20년 역사 등을 담은 '홍보투어코스 (YTN INSIDE)'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개설했다.

1층 홍보투어코스 첫 코너에는 글로벌뉴스리더에 걸맞게 3개의 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YTN 세계방송지도를 LED벽으로 구성해 놓아 견학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YTN을 앞 복도 양쪽 벽을 이용해 YTN 연혁과 철학, 편성 방침, 프로그램 소개 등 모두 11개 코너가 Design Wall 형식으로 펼쳐져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용할 예정인 5층의 홍보투어코스에는 실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림으로 보는 YTN'과 '취재에서 보도까지', 'YTN 사람들' 등 뉴스전문채널 YTN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전시공간도 만들어 놓았다.

홍보투어코스의 마지막 코스인 1층 오픈 스튜디오 옆 '포토 존'에서는 YTN의 남녀 앵커와 기상캐스터의 실제 모습과 같은 크기의 사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홍보투어코스의 백미로 손꼽히는 '체험 스튜디오'는 누구나 뉴스 앵커와 기상캐스터처럼 직접 뉴스 진행을 하거나 날씨 예보를 전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신사옥 입주식 이전부터도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YTN을 견학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방송업계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체험 스튜디오 이용 희망자들은 방문시 USB를 지참해 오면 앵커가 된 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 갈 수 있다.



YTN 홍보투어코스 운영개요

- 대상: 초·중·고·대학생, 방송업계 종사자 및 일반인
- 운영: 주 5일 (월~금), 1일 2회 (오전, 오후 각 1차례 2시간)
- 견학 인원: 1회당 최대 30인 이하 그룹만 신청 가능
- 진행 방식: 1층 자유 견학, 5층과 체험스튜디오는 사전 예약제
- 문의처: 홍보·시청자팀 (398-8182)



YTN INSIDE

“상암에서 함께 뉴스를...”

쿠보 유이치 서울지국장 | TBS 텔레비전



난 가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이전의 사옥이 있었던 송례문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풍경도 좋았지만 자전거로 달리기에는 넓고 넓은 디지털미디어 시티가 더 쾌적한 느낌이다. 출퇴근 중에 얼굴을 들어 보면 YTN의 새로운 로고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디지털미디어 시티의 하늘에 아주 영예스러운 로고라고 느껴지며, 내가 좋아하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됐다. YTN과 함께 우리 TBS텔레비전(JNN서울지국)도 이곳 상암동 사람이 되었다. 지국 창 밖을 내다보면 건설중인 고층빌딩이 보인다. 거리 전체가 밝고 개방적 이어서 신선한 인상이다. 지금이야말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도심이라고 다시 한번 느낀다. 아직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맛 집도 몇 군데인가 발견했다.

지국 이전을 준비하면서 배석규 사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달라”고 수 차례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이전과 관련한 업무와 공사 등 여러가지 조정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TN사옥에 TBS가 서울지국을 개설한 것은 딱 10년 전인 2004년이다. 그 당시에도 많은

협력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기에, 또 다시 YTN 여러분의 힘을 빌려 새로운 서울지국을 문제없이 개설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2015년은 한일양국에 있어서도, 또한 YTN과 TBS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해이다. 잘 알다시피 내년은 한일양국이 국교정상화를 맺은 지 50년, 그리고 YTN과 TBS가 보도분야에서 우호협정을 맺은 지 20년을 맞이한다. 한일양국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도기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냉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양국 국민이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쌓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곳 상암동에서 한일간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뉴스를 만들어 나갑시다!”

“YTN NEWSQUARE’ 8층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TBS 서울지국에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시고, 앞으로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Zoom in 2 | 함께 만드는 내일 |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몽골로 떠난 YTN 중계차

허 찬 PD | YTN사이언스 TV본부 편성기획팀

아날로그 시대와 함께한 중계차는 아직도 잘 달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방송장비들도 FULL HD로 변화되었고 최첨단 기능들로 무장된 중계차들이 등장했다. 가끔은 멀뚱히 서있는 아날로그 중계차를 보며 안타까움 마음이 들고는 했다. 마침 YTN SCIENCE의 과학콘텐츠를 제공받고 있는 몽골의 경우 중계 장비가 열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는 흔쾌히 중계차 기증을 결정했고 K-SCIENCE 프로젝트를 통해 중계차에게 다시금 생명과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었다.



회사는 YTN 중계차를 몽골 후레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지난 3월 6일 송례문 YTN타워에서 인도식을 가진 데 이어 지난 4월 22일 몽골 현지 후레대학교 운동장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은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마쳤고,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은 기증식이 끝나기 무섭게 앞 다퉈 중계차에 달려가 새로운 장비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YTN 중계차, 이제는 몽골의 교육 현장에서 예비 방송인들을 키우는 주춧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K-SCIENCE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 방송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몽골로 보낸 YTN 뉴스밴’

오광식 중계부장 | 기술국 중계부

1995년 YTN개국과 함께 한국 방송뉴스의 환경은 다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YTN뉴스밴은 그 시작과 더불어 방송뉴스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입 이후 19년 동안 생방송 현장을 누비며 YTN뉴스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기동성과 기술력을 갖춘 YTN뉴스밴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폭발 사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등 사건·사고는 물론이고 대통령 업무보고, 국정감사 생방송 등 굵직굵직한 이슈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했다.

몽골로 보낸 뉴스밴 차량은 7,500cc 배기량의 중계차로 미국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Wolf Coach사에서 제작돼 미국 포드사가 판매했다.

방송시스템으로는 Sony BVP-70IS 카메라 3대, 비디오 SW'er, 오디오 믹서는 8채널, 녹화기로는 Sony BWV-75, 인터컴 시스템 등이 설치돼있어 일반 방송국 부조정실처럼 생방송 또는 녹화도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차량 지붕에 설치된 Antenna Pole은 약 1.5미터 높이의 기둥이 8단으로 구성돼 총 높이가 12m에 달하며 당시 방송계에서는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다. 전원은 110볼트 4.5Kw짜리 발전기를 장착하여 자가

발전이 가능하고 발전기 정지시 차량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Inverter가 있으며, 외부전원도 수전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우리 중계부 구성원들의 손때가 묻은 중계차 1대가 이번에 몽골 후레대학으로 기증됨으로써 아날로그 뉴스밴의 퇴역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다소 노후화된 아날로그방식의 뉴스밴이지만 몽골로 기증이 결정되고 중계부에서는 새로운 중계차를 만드는 마음으로 꼼꼼한 점검과 상태가 양호한 장비의 재배치를 반복하며 기증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날로그 중계차를 새롭게 탄생시켜 몽골로 떠나보냈다.

19년 동안 정들었던 아날로그 뉴스밴을 떠나보내는 심정은 마치 20년 동안 키워온 자식을 분가시키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 후문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찡하고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아무쪼록 기증한 중계차가 몽골의 후레대학에서 미래 방송산업의 인력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YTN이 조금이나마 몽골의 방송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힘내라! YTN 사이언스!

안성명 PD | YTN사이언스 TV본부 편성기획팀



어렸을 적의 어렵뫼한 기억이 솟아오른다.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아버지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안테나를 만지작거리셨고, 이제 잘 나온다며 소리를 고래 지르며 아버지와 함께 전파를 잡기위해 애쓰던 모습이 선하다. 지금은 생산조차 안하는 동동한 TV에 V자 형태의 안테나, 채널을 돌리던 손잡이는 빠져 펜치로 채널을 돌렸고, TV를 때리며 화풀이를 하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TV라는 사물이 내 머릿속에 완벽히 자리 잡았을 무렵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생겼다. 드라마, 코미디, 만화 등 수없이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채널을 돌리는 족족 나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케이블TV의 시초였었던 것 같다.

1995년 케이블TV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케이블TV 초기에는 시청자 수요도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도 부족했다. 따라서 케이블TV에 대한 공익성이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동안 TV라는 네모상자에서는 상업성을 지향한 오락물과 선정성, 폭력성이 들어나는 콘텐츠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다. 이후 케이블TV의 상업적 오락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케이블TV에 대한 공적책임을 언급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공익 채널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한다. 그렇다면 “공익채널을 시청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익채널에 어떤 채널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YTN SCIENCE에서 일한지 5년이 되어간다.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주로 본 제작팀

의 모습은 며칠 밤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다. 과학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성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오디오 언스 타케팅 조차 쉽게 정하기 힘든,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공익 채널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는 있으나 인식과 보호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만 하다. 딜레마 아닌 딜레마 속에서 YTN SCIENCE는 그렇게 8년을 버텼다.

나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운과 함께 동료들의 대표로 받은 상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받은 상이 아니다. YTN SCIENCE가 받은 채널 상이라고 생각하며 마땅히 사이언스의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할 상이다. 오늘도 내일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YTN SCIENCE 동료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 국내 유일의 과학채널 YTN SCIENCE 파이팅! 그리고 힘내자!



희망의 4월

이유찬 PD | YTN사이언스 TV본부 편성기획팀



대한민국이 ICT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193개국 ICT 총회, 2014 ITU 전권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미디어 파트너 YTN science

YTN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사이언스에 희망찬 소식들이 있어 YTN 뉴스퀘어의 모든 YTN 구성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K-SCIENCE 프로젝트〉 2014 케이블TV 대상 문화교류 부문 수상!

YTN 사이언스의 K-SCIENCE 프로젝트가 2014케이블TV 대상 PP 작품상 문화교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걱정 반 우려 반의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케이블TV협회의 상까지 받으니 이제는 정말 YTN SCIENCE의 대표작품으로 자리매김한 듯 하다. 앞으로도 YTN SCIENCE는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K-SCIENCE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미래부 〈2014 ITU 전권회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 YTN SCIENCE!

전 세계가 주파수와 호환 통신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이른바 전 세계의 정보통신기술 표준화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제대회가 ITU 전권회의(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4월 3일 YTN SCIENCE를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했다.

YTN science

“이번 정류장은 YTN입니다”

박인혜 | YTN 플러스 경영기획팀



YTN PLUS



“이번 정류장은 상암 DMC 홍보관, YTN입니다”

4월 19일,
YTN뉴스퀘어로의 첫 출근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지털YTN에서 YTN플러스로, 분당에서 상암으로, 1년을 고대하던 모든 일들이 바로 저기서 시작된다는 생각에 버스를 내려서는 발걸음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퀘어에서의 첫 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로 바뀐 책상과 밝아진 사무실에서부터, 새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아마 4월로 11주년을 맞은 우리 YTN플러스에는 가장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바뀐 날이었을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만큼 직원들의 손과 발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퀘어로 옮기면서 많은 직원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YTN과 다른 계열사들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는 점일 것 입니다. 늘 YTN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우리 YTN플러스 직원들에게는 처음으로 YTN과 같은 건물에서 ‘같이 일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남대문과 분당의 지리적 거리만큼 커뮤니케이션에도 거리감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층 하나, 혹은 책상 하나만큼의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YTN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라디오, DMB 등 모든 YTN 계열사가 함께 모여 같은 공간에 있으니 앞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전략, 더 빠른 뉴스 전략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 이제 제법 익숙한 눈길로 디지털미디어시티 거리 위로 빛나는 대형전광판의 YTN뉴스를 보며 출근합니다. DMC의 수많은 미디어 사 빌딩 사이를 시원하게 불어나가는 상암동의 바람처럼, 새로움을 품은 YTN뉴스가 이곳에서 힘차게 불어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YTN DMB 상암에서 재도약!”

이희수 PD | YTN DMB 채널운영팀

지난 2004년 어느 봄 날, 맨 땅에 헤딩(?)할 만큼 무모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꿈과 열정'이란 무기를 가지고 승례문 YTN으로 향했다. 한 청년의 방송국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정확히 10년 후 그 청년은 이제 불혹을 바라보는 중년PD가 되어있다.

2005년 12월, 뉴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손안의 TV' DMB 개국 첫 방송과 함께 내가 만든 첫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당시의 희열은 잊을 수가 없다. 손바닥보다 작은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DMB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떤 매체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DMB 시청자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였다.

이제 상암동 시대를 맞이한 YTN DMB는 더 큰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어느 사이엔가 해성처럼 등장한 스마트 폰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경영침체에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승례문 YTN타워 18층에 텅 빈 사무실에 책상 하나로 시작해서 2006년 독일월드컵을,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을, 그리고 LPGA 골프와 프로야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이목을 끄는 대형 스포츠 생중계를 통해 DMB 시청률 1위를 달성해 오지 않았던가? YTN DMB가 역경을 헤치며 달려온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컨대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한다.

지상파 DMB 방송 출범 당시 '과연 모바일 화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회의감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우리는 묵묵히 해답을 찾아내 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손 위에 놓인 작은 화면에 빠져있고, 우리에게겐 기회로 찾아왔다. 이제 야말로 축적된 풍부한 방송 노하우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DMB형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근길에 YTN 뉴스 속보를 시청하는 사람들과 퇴근길에는 YTN DMB로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10년 전 승례문 사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나의 '꿈과 열정'이 상암동 첫 출근길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반갑다 상암 DMC!”
재도약을 위한 YTN DMB의 힘찬 날개짓이
상암동 뉴스퀘어에서 시작됐다

YTN DMB



Kelly Kim



“한국을 세계로 알린다”

캘리 김 앵커·에디터 | 글로벌뉴스센터 영어뉴스팀

미국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나중에 한국에 살 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전국이 월드컵의 열기에 휩싸였던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짧은 여행으로 시작했던 한국 방문이었지만 어느새 10년 넘게 부모님의 고향에 살고 있네요.

10년 전의 선택은 제 인생에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포장마차, 찜질방, 파티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회식문화까지... 매일 매일이 휴가인 것처럼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작하게 된 EBS라디오 출연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한국은 곧 저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뒤 현재 버지니아 주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포함한 수많은 동포들은 매일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WORLD를 통해 한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은 동포들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특히 IT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WORLD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전하면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YTN은 지금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속한 글로벌 뉴스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 상암동 신사옥 사무실, 투어코스 등의 명칭을 영어로 작성하는 일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YTN의 성장에 제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YTN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YTN 사람들은 아주 프로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WORLD를 통해 한국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tay tuned for more from YTN WORLD!”
(YTN 채널 고정!)

YTN WORLD

세월호 “3년 같았던 3분”

김범환 기자 | 사회 2부 광주지국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13분 운명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 있는 총경급 경찰 간부였다.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정색하며 믿기지 않는 말을 했다.

“동생, 큰일 났네. 진도에서 5백 명 정도가 탄 여객선이 조난당해서 침몰하고 있대네,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라는데 수학여행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 한 번 알아보소.”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다.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기자실에서 나와 다시 확인했다. 그게 사실이냐고, 맞는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 그때가 9시 15분. 곧바로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해양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귀땀해 준 경찰은 육상 경찰이었기 때문이었다. 급하기만 한데 해양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황이 발생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짐작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했기에 세 번째 만에 통화가 돼 제보 내용이 맞느냐고 물으니 “맞아, 한 30분이나 40분 땀어!” 곧바로 사회2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부장은 회의 가고 내근자는 통화 중이라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급하다며 빨리 바꿔주라고 채근해 세 가지만 불렀다. 다른 기자들 듣지 않게 건물 계단에서였다.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전남 진도 관매도 부근 해상,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여객선”, 속보로 뜨기까지 딱 3분이 걸렸다. 3년 같은 3분이었다. 속보가 나간 뒤에 바로 현장으로 출동 중인 경비정 정장에게 연락해 선박 이름과 톤수를 확인하면서 전화 연결을 이어갔다. 기사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오전 10시 반쯤에는 진도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고 여객선 사진을 확보해 내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사히 구조될 줄 알았다.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1보는 했지만,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 못다 핀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고 큰아들도 고3이기 때문이다. 애도 분위기 속에 이경규는 전남까지 와 골프를 쳐 빈축을 샀다. 세월호 사고로 자리를 보전한 법조인도 7명이나 된다. 단단히 취재를 준비했는데, 허재호 황제노역 파문 속에도 접대를 받으려던 7명이 골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歲月호, 世越호, 波之上(나미노우에), 아해, 구원파, 정조, 거차도, 맹돌수도, 팽목항, 서망항, 최덕하, 범부처, 범토벤, 이런 말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라’

정찬배 앵커 | 보도국 앵커팀

동정(Sympathy)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공감(Empathy)은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지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을 동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생방송 뉴스를 전하던 중 지인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대형 참사 앞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는 동정과 공감 중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고민해 본다.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했다. 과적과 구조 변경 등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탐욕과 비리가 가득실린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덩어리가 되어 한 순간에 가라앉았다. 불행히도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침몰 과정에서도 많은 승객들은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지만 결국 꽃다운 청춘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승객들을 제쳐 두고 자신들만 빠져나오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치밀어오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속옷 바람에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선장의 모습은 무책임이 아닌 광기였고, 살려달라는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달아나는 순간은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넘어 학살의 순간이었다. 또한 아무도 선실에 들어가지 않은 소극적인 구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의 차원이 아닌 울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이 같은 비극의 순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언론의 몫이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론은 반드시 기록하고 전달해야 할 무게감과 막중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24시간 뉴스채널 YTN은 이 같은 대형 사건·사고 상황에서 더 큰 책임감에 직면하게 된다. 시시각각 예고도 없이 들어오는 속보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들락대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독이 되는 작두 위를 걸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라는 절대 깜빡이지 않는다. 생방송 도중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모든 행위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특히 이번 일과 같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와 기자의 모든 행동과 발

언은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20년간 방송뉴스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다.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매체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 언론은 방향기를 제대로 잡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침소봉대해서 수색과정을 혼선에 빠트리거나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낼 때가 아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아직 수습조차 되지 않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영웅이 되려는 보도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특종이 아닌 진실이다. 여론을 끌고 나가겠다는 성급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닌 여론을 보듬고 달래주는 차분한 이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 지금이야말로 동정이 아닌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후기〉

아직 이번 사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 후기를 쓴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직후 우왕좌왕했던 구조과정만큼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가 보여준 혼란을 바라보면서 더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흘날리는 꽃처럼 풍성한 음표가 넘쳐나는 “Voice of Spring”

조수미 | 성악가

바흐의 곡들과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선율의 가곡들을 모아 'Voice of Spring'이라는 제목의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공연을 위하여 특별히 저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준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바이올리니스트 안나 페도토바와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비니첸코와 기억에 남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꽃과 사랑의 노래,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Voice of Spring' 잊지 못할 봄의 기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공연을 위해 도와주신 뉴스 전문채널 YTN의 상암 시대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합니다.

2012년에 발매된 음반 <La Luce(빛)>를 통해 저의 음악적 동반자인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와 함께 라이트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에 도전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바흐의 성악곡들을 모은 새 음반 <온리 바흐(Only Bach)>가 발매됩니다. 바로크 작곡가 바흐

의 칸타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청중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세련된 감각의 바흐를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제 음악적 모토인 '아름다운 도전(Beautiful Challenge)'을 이뤄가고 있는 제게 바흐의 음악을 담은 음반녹음은 또 한 번의 도전이었습니다. 바로크 작곡가인 바흐의 음악은 논리적인 부분이 많아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벨 칸토 소프라노인 저와는 이질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2006년 <바로크의 여행(Journey To Baroque)>를 녹음하며 바흐의 'Coffee Cantata'에 수록된 곡을 통해 '커피'라는 친근한 소재를 매개로 바흐와 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친숙함을 느껴 바로크 음악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20일 서울 공연을 비롯해 지방 공연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 무엇보다 필요한 기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주자고, 최고의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여 만족스러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마음에 따스한 봄날이 함께 하길 바라며 제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랑과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2014. 4 소프라노 조수미



행복하세요.
조수미



스타들의 YTN 신사옥 이전 축하 Message

나을을을거 내 대표한
YTN!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한하여
더욱 더 나은 세상을
열어 가소서. 01 외수

이와수 (소설가)

우리은행 농구단
Y-T-N 박정호 코치
전주원 (우리은행 한세농구단 코치)

YTN 신사옥
축하합니다!
남진 (가수)

YTN 신사옥
축하드립니다!
홍명보 (월드컵축구 대표팀 감독)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문식 (영화배우)

YTN 신사옥
축하드립니다!
박병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홍명보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
YTN 상암시대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더욱 더 빠르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리며 올해 브라질 월드컵 해를 맞아 축구대
표팀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YTN 하면 뉴스가 생각나요. 새로 이사해
서도 좋은 뉴스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승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감독)
YTN은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
연할 때 한국의 뉴스가 궁금하면 늘 챙겨
보던 방송이에요. 한국 발레가 세계속으로
뻗어가듯 YTN이 세계 속의 뉴스채널로 비
상하길 기원합니다.

김성녀 (교수·국악인)
그동안 우리 국민의 눈과 귀였던 YTN이
상암동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인의 눈과 귀
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만발합니다.

소녀시대 (서현)
YTN의 새 사옥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랑받는 YTN
이 되시길 저희 소녀시대가 응원할게요.

신동엽 (MC·개그맨)
건물이 막 이렇게 지어질 때 마다 저게 언
제 완공되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상암동에
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보다 공
정하고 보다 재밌고 YTN만의 색깔이 담겨
있는 그런 뉴스를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됐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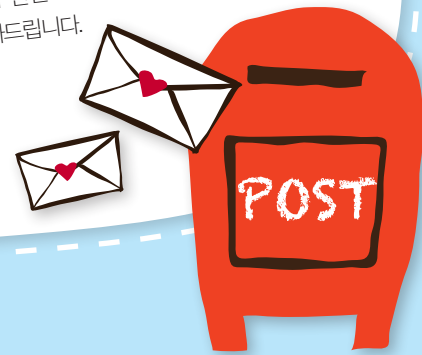
유세윤 (개그맨)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방송, 정말 건강한 정
보를 항상 가져다주는 YTN, 드디어 상암동
으로 이렇게 또 신사옥을 마련해 입주한다
니 축하드립니다.

황정민 (배우)
새집으로 이사하면 항상 너무나 설레잖
아요. 소풍가듯이 그 기분 잊지 마시고 저
희들한테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유희열 (가수·작곡가)
정말 말 그대로 깨어있는 24시간 뉴스채널
YTN 응원하겠습니다.

주영훈 (가수·작곡가)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많
이 전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저도 늘 시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가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
들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YTN 신사옥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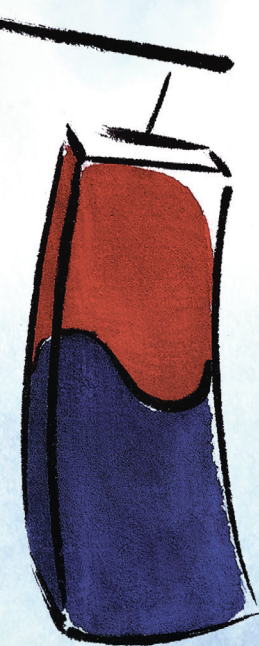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꿈의 신소재 탄소섬유 전주 생산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침단 탄소산업도시, 전주

탄소산업전주
일자리 창출



NOTICE BOARD

입사 고창영 영상편집부 3.24 / 전보 이선미 네트워크협력팀 3.10 / 김영진 타워운영팀 3.31 / 박진수 영상취재부, 최준영 영상아카이브팀 3.24 / 이지은 선거단 4.1 / 퇴사 이상희 자산운영팀 3.2 / 윤승중 타워운영팀 3.31